

재테크별 재테크 가이드

■ 학생

아직 학생 신분이므로 목돈을 모으는 적립식 상품 비중이 높을 것이며 이때는 수익률 차이보다는 안전성 차이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도 재테크입니다. 저리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다면 부모님 부담을 줄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재테크를 시작하세요.

■ 사회초년생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면 돈을 운용하는 방법보다 돈을 다루는 방법을 먼저 익혀야 합니다. 재테크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버는가가 아닌 얼마나 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때문에 자산관리 보다는 수입/지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돈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돈을 다루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 후 나머지로 저축하는 것이 아닌 수입 중 저축액을 떼어놓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Cash Flow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포함한 부채를 최대한 억제하세요. 다음으로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축 목적을 세우고 그에 맞는 재테크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 주식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은 계획된 목적에 의한 재테크라 보기 힘듭니다. 자동차 구입, 결혼준비 등 목적에 맞는 투자 대상을 고르세요.

■ 주부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는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은행 이율은 낮아지지만 합니다. 이렇다간 내집마련을 하고, 재산을 늘리기는커녕 늘어만 가는 지출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주변에서는 주식을 해서 얼마를 벌었다느니, 부동산에 투자해 은행이율보다 2배이상 높은 수익을 올렸다느니 하는 달콤한 얘기들이 들려오지만, 막상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하니 위험부담이 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망설여질 것입니다.

주부 여러분, 돈을 관리하고 재테크 하는 데는 분명 왕도가 있습니다. 아껴쓰는 것만이 돈을 모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십시오. 또한 주변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식, 은행, 펀드, 보험, 부동산 등 어머니와 함께 직접 재테크 방법을 모색하고, 스스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어머니가 여러분 곁에서 재테크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 창업자

“이제는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한다. 물론 1~2년 정도는 더 다닐 수도 있다. 어쨌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나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퇴직금에 대출을 좀 받아 가게라도 해볼까? 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없다. 어떻게 해야하나? 창업교실에라도 가 봐야겠다.”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이나, 직장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창업입니다. 물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만약 창업을 결심하신 분이라면, 직장을 그만두시기 전에 6개월이상의 충분한 창업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교육도 받아보고, 세밀한 사업계획도 짜서, 주위의 조언을 좀 듣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첫발을 내딛는 각오로 30대 초반의 마음가짐으로 재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각적인 검토와 충분한 구상없이 창업을 시작하는 것은 투기와도 같습니다. 차라리 어렵지만, 새로운 직장을 구해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 자영업자

“요즘은 IMF시절보다 더 어렵다. 도대체 사람들이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부유층을 상대하는 업종이야 수천만원짜리 사치품도 없어서 못 판다지만 서민을 상대하는 나 같은 사람에겐 판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규모를 좀 더 키워 바라다매로 나가볼까? 대출받기도 쉽지 않지만, 상환계획도 확실히 세워 놓아야 한다. 그리고 운영자금의 관리도 쉽지 않다. 외환시장의 변화도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장사를 잘 하고도 재무부에서 손실을 볼 지도 모르니까, 불안하기도 하다. 좋은 방법은 없을까?”

금융기관 거래도 여간 까다로워진 것이 아니고, 주변 경제환경의 변화도 너무 커서, 현재 나의 장사가 계속 잘 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온 엄청난 유통의 변화, 대기업들의 초대형화로 인한 틈새시장들의 잠식, 각종 어지러운 합종연횡... 도무지 정신없이 이어지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재편 등으로 나의 한치 앞 미래가 풍전등화와 같은 꼴입니다. 주변사람들의 조언과 사업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독신자

돈 없으면 초라한 더블보다 못한 것이 현실. 누가 나를 신경 써 줄 것인가? 독신자이거나 독신자를 꿈꾸는 자들은 재테크부터 확실히 챙겨야만 합니다. 우선 화려한 싱글의 기본인 멋진 내집 마련하기는 기본이고, 아프면 누가 돌봐주나? 질병과 재해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싱글이 꿈꾸는 풍족한 노후에 대한 준비도 미리 미리 해야만 합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초라한 미래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독신여성이나 남성들은 가정이 없으므로 돈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자기계발하고 즐기는데 모든 돈을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나중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재테크 전략을 집중하라는 말도 독신생활에는 이러한 약점이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먼저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경제능력을 상실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돈에 쪼들리지 않도록 개인연금 등을 미리 들여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여의 30%에서 40%를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저축상품을 골라야 하고, 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인터넷 출처]

